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지속적 교류협력 방안

A Study on the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st Asia Cultural City

오 동 욱



Summary

요약

1. 과제의 필요성

-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3국의 각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이 상호 간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정신을 실천하고자 매년 국가별 1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상호 간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구(한국), 중국(창사), 일본(교토) 등 3개 도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한중일 3개 도시(대구·창사·교토)의 우수한 문화가치 공유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간 소통의 통로이다. 이는 대구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프로그램이 동아시아 국민 간에 향유되고, 예술가들 간에 접목되는 것을 의미한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1년간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은 한중일 3개 도시(대구·창사·교토)의 우수한 문화가치 공유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간 소통의 통로이다. 대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잠재력을 중국과 일본의 도시에 서사적으로 잘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의 촉진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이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간에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교류하고, 많은 시민이 문화를 맘껏 향유하고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열기가 도시 전반에 녹아들어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도시 간의 문화적 다양성 촉진으로 정서적 거리감을 계속 줄여 나가며, 사회·경제·관광 등의 영역으로 파급되어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해야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 대구시는 5월 12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문화와 산업, 관광이 어우러진 다채롭고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였다.
-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동아시아, 고동치다’라는 슬로건으로 서로간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아시아 평화발전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취지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문화로 흥(흥)하고 흥(흥)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 운영축제와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한시조직이 아닌 항구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업 추진체계는 행정 중심의 한시적 조직인 전담 TFT 형태이므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3개 도시 간, 그리고 이후 지정되는 문화도시 간에도 지속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방향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문화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구조가 필수이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중 특정 도시의 관심만으로는 안 되므로 협의를 통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시도하기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개 도시는 문화로 협력했던 소중한 경험과 우정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시,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교류도 중요하지만 3개 도시가 함께 만들어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지속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대구·창사·교토 간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들의 본격적 실행을 위한 체계로서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가 및 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교류체계를 형성하여 각 개별단체 및 도시 차원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 둘째,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도시들 간의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 구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매개로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정기적인 문화 교류가 가능한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우선 1단계로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를 설립 후 2단계로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로 확대 창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한·중·일 3국의 공통적 문화원형인 보자기축제의 킬러 콘텐츠화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문화가 아니라 보자기처럼 다양성을 통해 새롭게 융합하는 창의도시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의 쌍방향 인력 연수프로그램의 공동 기획작업이다. 3국 간에 공동기획 및 제작, 마케팅 매개·축진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영역별 교류 활성화로 휴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다섯째,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한·중·일 문화교류 백서의 공동 발행이 필요하다. 백서의 공동 작업을 통해 문화도시 간의 교류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분석하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나침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한다. 예술가 DB, 예술기관 DB, 아시아문화정책 정보 취득 및 취합 등의 운영으로 향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문화산업 트렌드 파악을 위한 문화산업 콘텐츠 페어 개최와 참가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대표업체와 단체가 참여하고, 모바일콘텐츠와 문화원형 등 분야별 페어를 개최하여 최신 제품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곱째,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뮤직 위크(Daegu Music Week)’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대구의 우수한 음악자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외교적 차원에서의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목 차

요 약	i ~iii
-----------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연구 흐름	6
제3절 대상지역 개관	7
1. 창사	7
2. 교토	10

제 2 장 |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분석

제1절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이해	15
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개요	15
2. 주요 추진사업 및 재원	16
3. 사업의 목적 및 특징	17

제2절 2017 교류사업 현황	19
1. 추진 체계	19
2. 도시별 추진 교류사업	20
3. 대구시 주요프로그램	23
제3절 성과와 한계	29
1. 주요 성과	29
2. 한계	32

제 3 장 | 유사사례 분석

제1절 사례대상 선정	37
1. 사례 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37
2. 선정 사례	37
제2절 사례분석 내용	39
1.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39
2. 미주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42
제3절 시사점	44

제 4 장 |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제1절 교류 활성화 기본원칙 및 방향성	49
1. 기본원칙	49
2. 방향성	50
제2절 지속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55
1. 대구·창사·교토 간 문화 거버넌스 구축	55
2.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 주도적 설립·운영	56
3.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DB 구축 운영	56

4. 문화콘텐츠 인터넷 포털 설립	57
제3절 교류협력 프로그램	58
1. 대표축제인 보자기축제의 킬러 콘텐츠화	58
2. 인력양성 연수프로젝트 공동기획	61
3.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백서 발행	62
4. 문화산업 콘텐츠 페어 개최 및 참가 지원	63
5.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뮤직 위크’ 운영	64

제 5 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68
제2절 제언	71

참고문헌	72
------------	----



Contents

표 목 차

<표 I-1> 창사시 주요 현황	8
<표 I-2> 교토시 주요 현황	11
<표 II-1>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방향	20
<표 II-2> 대구 주요 프로그램 현황	21
<표 II-3> 창사 주요 프로그램 현황	21
<표 II-4> 교토 주요 프로그램 현황	22
<표 II-5>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주요 교류활동 내용	25
<표 II-6>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운영 비교	32
<표 III-1> 선정사례 대상	38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추진 흐름도	6
<그림 I-2> 창사시 위치도	7
<그림 I-3> 교토시 위치도(자료 : 두산백과사전)	10
<그림 II-1>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체계	19
<그림 II-2>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로고	20
<그림 II-3>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활동 이미지	28
<그림 II-4>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협업체계	30
<그림 III-1> 유럽문화수도 선정과정	40
<그림 III-2> 유럽문화수도 발전과정	41
<그림 IV-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	52
<그림 IV-2> 보자기 관련 전시·체험·퍼포먼스	56
<그림 IV-3> 젓가락 제조 및 전시(젓가락연구소)	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대상지역 개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한·중·일 문화의 이해와 교류, 동아시아문화도시

-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상대 문화의 이해와 교류협력’을 실천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국가별 1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
 - 2012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제4회)에서 결정
- 한·중·일 3국은 역사적·문화적·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
 - 예로부터 정치·문화·경제를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교류 지속
 - 3국의 해당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반목과 갈등 해소 취지
- 2017년 대구광역시(한국), 창사시(중국), 교토시(일본) 3개 도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동아시아 고동치다’를 공동 슬로건으로 프로젝트 추진
 - 2014년 광주광역시(일본-요코하마, 중국-취안저우), 2015년 청주시(일본-니카타, 중국-칭다오), 2016년 제주도(일본-나라, 중국-닝보) 선정

■ 한·중·일 도시 간 문화가치 공유와 소통

- 한·중·일 3개 도시(대구·창사·교토)의 우수한 문화가치 공유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간 소통의 통로
 - 1년 동안 중국 및 일본의 선정도시와 함께 전통문화, 예술,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개최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를 홍보하고 소통
 - 지역 특유의 문화적 프로그램이 국민들 간에 향유되고, 예술가들 간에 접목
- 도시 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면서 공존의 가치 추구 가능

- 3개 도시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기위한 문화적 다양성 촉진, 경제·사회·관광 등의 파생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콘텐츠의 재생산에 기여

■ Post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 다각적 검토 필요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해당연도의 문화행사를 무사히 진행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과 정체성을 일본과 중국의 도시에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문화적 다양성 증진 및 문화공동체적 가치와 의미를 잘 전파해야 함.
- 한·중·일 간 동질성 혹은 이질성에 기초한 연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의 촉진으로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활력이 도시 전반에 녹아들어 지속적 원동력으로 작용
-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의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는 Post 동아시아문화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2. 연구 목적

- 대구·창사·교토 3개 도시 간의 Post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 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방안 제시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장을 위한 유사사례 분석
- 동아시아 권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지속적 홍보 확산, 문화역사적 자산과 정체성의 지속적 제고와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Post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 및 역점과제 제시
 - 실질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실행 중심의 아젠다 발굴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 가능한 시점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 내용적 범위

- 이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
- 제1장은 도입부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내용, 방법론 등으로 구성
- 제2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분석으로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현황, 성과와 한계점 등을 분석
- 제3장은 유사사례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정리
 - 유럽문화수도, 미주문화수도 등 분석
-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발전방안을 제시
 - 1~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Post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 제시
 - 3개 도시 간 교류협력 과제와 프로그램 언급
-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

2. 연구 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문헌연구, 유사사례 분석, 기존 동아시아문화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 정성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 현장 방문과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실시

■ 문헌 분석

- Post 동아시아문화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에 관한 정책자료 및 문화교류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과 분석틀 수립에 활용

■ 유사 사례조사

-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유럽문화수도과 미주문화수도 정책의 프로그램과 추진 방법들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주는 시사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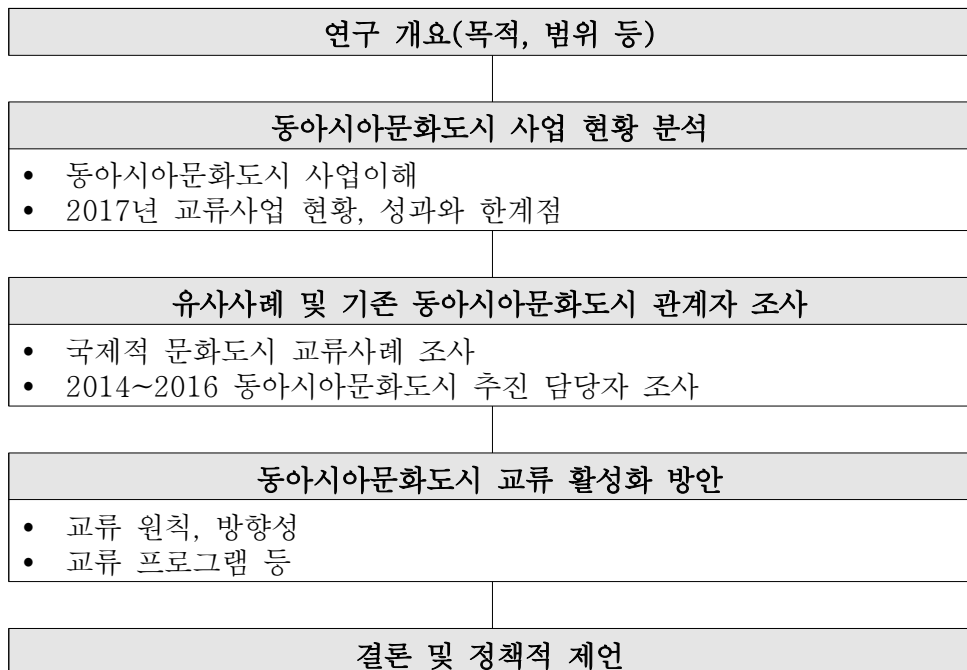
■ 기존 동아시아문화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를 기 경험한 광주광역시, 청주시, 제주도 추진 관계자와 문화 전문가를 면담하여 추진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

■ 현장 방문 및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 병행

-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 진행

3. 연구 흐름



<그림 I-1> 연구 추진 흐름도

제3절 대상지역 개관

1. 창사¹⁾

■ 일반 개요

- 후난성 성도인 창사는 장강(長江) 중류지역의 대표 도시
 - 우한(武漢)·정저우(鄭州)와 함께 중국 중부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최근에는 장강 유역 개발이 강화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강화되는 추세
- 외래문화 수용도가 높은 대표적 소비도시
 - 개방적이고 외부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유통환경이 좋은 것으로 분석
- 중국 정부, 2014년부터 중국 대륙 동서를 가로지르는 장강 유역의 지역들을 묶는 ‘장강경제벨트’ 사업 전개
- 2015년 중국의 12번째 국가급 신구인 ‘샹강(湘江) 신구’ 조성 시작
- 창사는 후베이(湖北)성, 후난성, 장시성으로 이뤄진 장강 중류지역의 거점도시 중 하나로 장강경제벨트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발전 환경 강화 전망
 - 베이징과 광저우를 잇는 징광고속철도와 상하이·쿤밍을 잇는 후쿤고속철도가 교차하여 철도교통 편리, 2014년 독일의 뒤스부르크행 국제화물열차 운행
- 2017년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미디어아트 분야의 새로운 창의도시로 선정



<그림 I-2> 창사시 위치도

1) 박진희(2016),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와 Kotra(2014) 및 창사시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표 I-1> 창사시 주요 현황

위 치	후난성의 성도(중국 내륙도시)
면 적/인구	11,819km ² / 7,044,118명(2010년 기준)
기 후	아열대성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온도 17.2℃, 연강수량 1,378mm
특 징	3천여 년의 역사도시이자, 마오쩌둥의 정치적 고향 후난성의 행정·상공·교통·문화의 중심지
교 통	창사 황화국제공항, 철도징광선(베이징-광저우)
주요산업	쌀·돼지·동백유·차·목재 등의 대집산지 기계, 전자, 방직, 식품 등이 발달한 종합 공업도시
관광정보	마오쩌둥 고향, 첩파빌리온(역사관), 오렌지섬 등
주요축제	벚꽃축제, 새우볶음축제
자매도시	한국(구미), 일본, 미국 등
기 타	후난대학 등 23개 대학이 있음 중국 8대 요리에 속하는 상차이요리가 유명

■ 역사·문화적 특성

- 마오쩌둥(毛澤東)이 정치적 고향으로 삼는 정치혁명의 중심지
 - 후난성에서 태어난 마오쩌둥이 청년시절 ‘후난 제1사범대학’에서 수학, 졸업 후 창사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며 정치사상을 형성
 - 창사는 중국 공산당 혁명의 제반 활동에 관계되는 전통적 명예를 지닌 도시
- 3,000년 역사문화의 고도
 - 송대의 유학자 주희의 서원이 위치한 역사·문화적 향취가 높은 도시
 - 중국 4대 서원 중 하나인 ‘웨루(岳麓)서원’은 주희가 성리학의 후학을 양성했던 서원으로 현재 후난대학교로 발전
 - 중요 문화재 보호단위(單位)가 140여개와 국가급의 문화보호단위 7곳 지정
 - 박물관에 약 4만여 점의 문화재 소장, 100여 개의 1급 문화재 보유
- 국제적 관광명소인 장가계 연계
 - 아름다운 협곡으로 유명한 장가계는 특히 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

소로, 한국에서 이동시 창사에 위치한 황화국제공항을 주로 이용

- 방송 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발전,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미디어아트 분야)로 선정
 - 중국의 문화산업은 동부 연해지역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창사는 내륙 도시면서도 문화산업이 발달, GRDP의 8.8% 차지(2014)
 - 특히 방송콘텐츠 장르가 발달, '후난위성TV'는 창사 소재 지역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CCTV 다음으로 성장
- 후난위성TV, '대장금' 드라마를 최초 방영하고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와 같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의 판권을 구입하는 등 한국과 프로그램 교류 활발
- 대표적 역사문화시설
 - 후난성 박물관
 -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 박물관, 1950년대 초에 건설된 총면적 5만㎡, 건물면적 2만 9천㎡의 대형박물관으로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의 문물과 은주의 청동기, 초나라의 문물 등을 보유
 - 악록서원
 - 세계 최초의 고등학교원, 북송(北宋)의 개보년(976년)에 설립
 - 소산(韶山)
 - 마오쩌둥의 출생지, 장사에서 130km떨어진 작은 도시로 공산당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장소로 지정
 - 도화원
 - 이상향의 대명사 격인 '무릉도원'이 유래된 중국 4대 도교승지로 후난성 상덕시에 소재

2. 교토²⁾

■ 일반 개요

- 일본 교토부[京都府] 남부의 분지에 있는 고도(古都)인 교토는 부청 소재지로 11개 구로 구분되며, 시역(市域)은 교토분지와 동·서·북 산지에 걸쳐 있음.
- 교토분지는 대륙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귀화인에 의해 발전됨에 따라 토지 개척에 의한 농업 생산과 양잠 등의 산업 발전
- 794년부터 400여 년에 걸쳐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국정의 중심지로 변형
 - 바쿠후[幕府] 정치의 시작과 에도시대에 수도가 도쿄로 옮겨지면서 교토는 형식적인 수도로 전락
- 전국적인 학술·문화·관광의 도시
 - 교토대학·도시사대학 외에 많은 대학과 미술관·박물관·국제회관 등 입지
 - 상공업과 함께 관광업 발달, 공업 중에서 전통공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그림 I-3> 교토시 위치도(자료 : 두산백과사전)

<표 I-2> 교토시 주요 현황

2) 김영준(2010),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자료 및 교토시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위 치	일본 교토부[京都府] 남부
면 적/인구	827.9km ² / 1,467,219명(2014년 기준)
기 후	분지지형 ※대구와 유사 봄은 대체로 포근하고 겨울은 상당히 추운 편
특 징	1,000년의 역사 고도
주요산업	건축물(염색업)·상업, 관광업 술·과자류·장아찌 등 전통 식품공업
관광정보	교토고쇼, 니조성 등
주요축제	기온마츠리 축제, 벚꽃으로 유명
자매도시	한국(진주), 미국, 프랑스, 등
기 타	교토대학 등 38개의 대학 (재)대학 컨소시엄 교토(상호교류, 경제계와의 제휴)

■ 역사·문화적 특성

- 교토는 많은 문화유산, 전통공업, 다양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국제적 문화관광도시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 오래된 문화유산과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온 1000년 수도인 교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일본 국보의 20%가 시내 전역에 입지
 - 1,000년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과 신사 2,000여 개 입지
 - 옛 왕궁인 교토고쇼와 도쿠가와가 재경거관인 니조성·가쓰라이궁 입지
- 대표적 역사문화시설
 - 긴카쿠사[金閣寺]
 -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시대의 별장으로 지어져 선종사찰로 전환됨.
 - 무로마치 시대 전기의 기타야마 문화를 상징하는 건물
 - 현재의 건물은 1955년에 재건, 옛 건물은 1950년 한사미승에 의하여 소각
 -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장편소설에 ‘금각사(金閣寺)’를 통해 널리 홍보
 - 기요미즈사[清水寺]
 - ‘성스러운 물(청수)’을 뜻하는 기요미즈는 780년에 설립된 사찰
 - 교토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본당의 뒷마루 '기요미즈노부타이[清水の舞台]'는 전망대의 역할을 담당

- 오노타키 폭포수는 지혜·사랑·장수를 상징, 많은 관광객 방문 유도
- 헤이안신궁[平安神宮]
 - 1895년에 간무덴노의 헤이안 천도 1,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
 - 1868년 도쿄로 수도가 천도되면서 교토의 문화·교육·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건립
 - 신전은 헤이안시대 왕궁의 형식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초록색의 기와와 붉은 옷칠을 한 기둥이 헤이안신궁의 특징임.
- 아라시아마(嵐山)
 - 아라시아마는 헤이안시대 때부터 산과 강, 도케츠 다리 등 경승지로 유명한 관광지
 - 카메야마, 나카노시마, 린센지 등의 세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호즈천이 흘러 평야에 다다르는 부근에 위치
 - 카메야마에는 단풍나무, 진달래, 벚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숲과 휴게소, 전망대, 광장 등이 입지
 - 아라시아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텐류지와 아름다운 연못으로 둘러싸인 다이카쿠지 등 유명한 사원들을 보유하고 있음.
 - 아름다운 경관을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많고, 작은 규모의 신사와 특색 있는 명소들이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임.



제2장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분석

제1절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이해

제2절 2017 교류사업 현황

제3절 성과와 한계



제2장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분석

제1절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이해

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성격

- 한·중·일 3국 간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기치로 ‘문화교류 및 융·복합,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및 교류행사 개최 합의(2012. 5. 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 단일국가의 제도가 아닌 한·중·일 3국이 연합하여 하는 다국가 실시 제도
- 선정된 3개 도시 간 문화예술 및 인력이 교류·소통하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상호 문화를 이해·존중하며,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 근본적 취지
- 역사적 유사성을 가진 동북아 3국이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의의
 - 문화교류를 이루어나가면서 문화 수요 확대에 상호 대응하는 전략으로 추진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징적 의미가 강한 프로젝트
 - 아시아 문화의 다채로움과 풍부함,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을 조명하고, 문화도시 구성원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시민의식 고양

■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내역 및 방법

- 선정 내역
 - 2014년 : 광주(한국), 요코하마(일본), 취안저우(중국)
 - 2015년 : 청주(한국), 니가타(일본), 칭다오(중국)
 - 2016년 : 제주(한국), 나라(일본), 닝보(중국)
 - 2017년 : 대구(한국), 교토(일본), 창사(중국)
 - 2018년 : 부산(한국), 가나자와(일본), 하얼빈(중국)

○ 선정 방법

- － 한·중·일 국가별로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실시

■ 선정기준

○ 도시의 문화적 역량,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 현황,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 운영프로그램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 도시역량

- －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 실적
- － 문화시설 현황 및 문화재단 운영 등 지역 문화조직 구축 여부
- － 문화 분야 예산이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 － 문화교류를 비롯한 국제문화행사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 계획

- － 동아시아문화도시 참여 배경과 목적, 선정 되었을 때의 중장기적 효과
- － 문화도시 사업 추진 사무국 설치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
- － 해당도시의 문화 중장기계획 등과의 연계성
- － 각 행사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 － 숙박관광시설, 교통 접근편의성 등 인프라
- － 대내외적 효과 확산 홍보전략의 적합성

○ 지역문화 발전계획

- － 국가 균형발전에의 기여, 동아시아 교류협력의 확산 가능성 등

○ 재원조달 계획

- －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및 사무국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2. 주요 추진사업 및 재원

■ 주요 추진사업

- 문화유산·예술·관광 등 도시별 특성 고려, 3개 도시 사무국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 확정
-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 이벤트, 중점 추진기간 운영, 국제적 학술심포지엄 등 행사

- 한·중·일 3국 간 공동협력사업
 - － 상호 간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사업, 미래문화 세대 육성 지원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 연계사업
 -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등 문화부 국제교류행사 연계개최

■ 추진 재원

- 비용분담 :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문화부에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관련 일부 예산 확보 지원
- 3국 문화교류사업 예산 : 각국 추진 사무국간 협의를 통해 분담

3. 사업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 한·중·일 문화도시 간 공존의 가치 추구(Tolerance)
 - － 도시 간의 문화적 정체성 공유 및 문화공동체 공감대 확산
- 문화자산과 경험 공유과정을 통해 독창적이고 문화적인 도시환경 구축
 - －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프로그램은 목표가 아닌 수단, 궁극적 목표는 대구 도시 브랜드 제고
- 문화적 수용력과 인문학적 성숙도 제고
 - － 문화적 다양성 수용으로 3국 도시 간의 정서적 거리감 단축
- 지역 거점형 문화도시 육성으로 국가적 균형발전 제고
 - － 문화적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문화분권의 초석(Cornerstone)
- 사회·경제·관광 등 타 영역 파생 및 협력효과 증대
 - － 문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서비스, 인력 등 각종 연계 활동 촉진의 기회

■ 특징

- 다국가 실시 제도
 - － 동아시아문화도시는 단일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와는 달리 한·중·일 3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특징 보유
 - －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 시 도입된배경이 있고 역사적 유사성을 가진 동

북아 3국(한·중·일)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면에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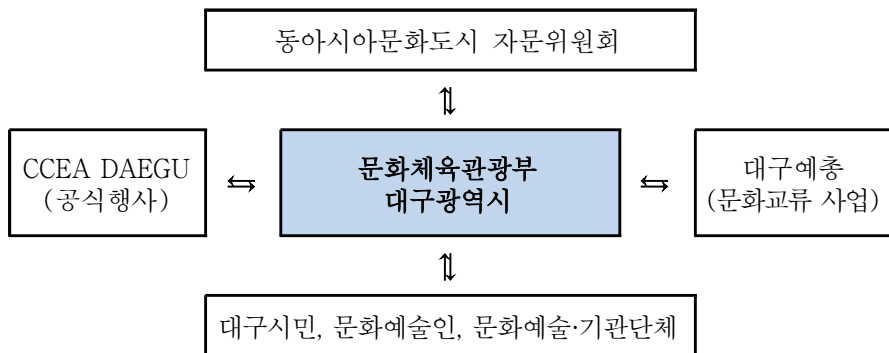
○ 법적 제도가 아닌 상징적 의미가 강한 사업

- 상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광특구나 국제회의도시, 문화관광축제처럼 국내법에 근거한 제도는 아님.
- 사업내용의 구체성이나 지원 부문은 법적 제도가 아닌 관계로 상대적 미흡
-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원이 크게 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기적 평가가 없음.

제2절 2017 교류사업 현황

1. 추진 체계

-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제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활용
- 사업 추진 조직체계의 외형은 구축되었지만 사전 준비과정이 다소 부족



<그림 II-1>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체계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 활동 기간 : 2016. 7월 ~ 2017. 12월
 - 조직 : 국제문화협력팀(TF) 5명(공무원 3, 중·일어 통번역 계약직 2)
 - 역할 : 한·중·일 문화교류사업 추진 등
- 동아시아문화도시 자문단
 - 목적 :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사업의 자문역할 수행
 - 인원 : 15명(예능단체, 대학, 언론사 등 민간전문가)
 - 기능 :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사업 자문 및 관련사업 정책제안 등
- 동아시아문화도시 실무위원회
 - 활동 기간 : 2017. 2월 ~ 사업 추진 완료시
 - 기능 :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프로그램 선정, 대표사업 개발
 - 구성 : 10명(문화예술인 등 민·학·관 기획자, 실무자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대구의 상징적 키워드 East, Asia, Culture, Daegu를 모티브로 삼국의 문화가 화합하고 어우러지고 있음을 표현
---	---

<그림 II-2>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로고

2. 도시별 추진 교류사업

■ 추진 방향

- 문화교류는 창사, 교토와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대구시의 중·일 자매·우호 도시, 국내외 중국·일본 예술가 초청 행사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취지에 맞게 확장 또는 탄력적 추진
- 각종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표 II-1>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방향

지역 문화예술인 활용	교류 네트워크 강화	문화 브랜드 제고
 •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 발굴 및 활동 기회 제공 • 국내외 예술인의 상호 교류 및 발전 플랫폼 • 문화예술 인재활용 허브	 • 3국간 문화교류 및 사회·산업 등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 확대 •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와의 문화교류 기반 구축	 •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문화콘텐츠 개발 • 지속 기반 마련 • 지역 문화부흥 및 문화 도시 인지도 제고 기여

■ 2017동아시아문화도시, 3개 도시의 주요프로그램

<표 II-2> 대구 주요 프로그램 현황

일정		사업(행사)명
월	일	
5	5 ~ 6	창작 뮤지컬 ‘견우지애’ 공연(삼국 공통소재 ‘견우와 직녀’ 이야기)
	12~13	대구 개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
	2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교토 참석)
6	14~16	한일 대학생 연극제 (대구 1, 일본교토 3개 연극팀 참석)
	23~27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교토 주관, 한·중·일 청년예술가 협업 아트 프로젝트)
8	5 ~23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마당(고등학생 각 60명 3개 도시 순회)
	11	한·중·일 전통문화 페스티벌(대구코오롱 야외음악당)
	15~17	동아시아 문학제(한·중·일 정형시포럼, 아시아의 꿈 문학 특강, 문학기행 등)
	29~9.3	한·중·일 사진전(한국 50, 중국25, 일본 50작품전시, 10.27~30 교토 사진전)
9	2~6	대구 보자기 축제(보자기 문화전, 삼국전통 놀이문화 체험, 보자기 예술제 등)
	6~9	몸짓으로 만난 한·중·일 무용축제(한·중·일 무용단 전통춤, 창작무 공연 등 6개)
	21	동아시아 3색 전통극 페스타(대구 창극, 창사 상극, 교토 교겐)
	24	동아시아 락 페스티벌(한·중·일 락밴드 9개팀 공연)
	25~29	감성의 공유, 한·중·일 미술전(한중미술작품 100점 전시, 10.20 ~ 24 창사전)
11	14	동아시아 오페라 갈라콘서트(대구오페라하우스)
12	2	대구 폐막식

<표 II-3> 창사 주요 프로그램 현황

일정		사업(행사)명
월	일	
4	18~20	창사 개막식(창사인민회당)
6	17~22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교토 주관, 한·중·일 청년예술가 협업 아트 프로젝트)
8	19~23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마당(대구시 주관 행사, 창사 전통 수공예 체험)
9	11~15	한·중·일 교류음악회(창사 음악예술단, 대구시립예술단, 교토시립 대학 예술단)
10	20~23	창사 미술 교류전(창사미술관, 대구미술협회 참가)
12	20~22	창사 폐막식

<표 II-4> 교토 주요 프로그램 현황

일정		사업(행사)명
월	일	
2	18	교토 개막식
7	2~10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교토 주관, 한·중·일 청년예술가 협업 아트 프로젝트)
8	5~9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마당(대구시 주관 행사, 교토 시각 예술 분야 체험)
	26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회의(교토선언 및 서명)
9	16~17	교토 하레부타이 축제(오카자키 공원, 대구 예술사절단 참여)
11	20	교토 폐막식

3. 대구시 주요프로그램

- 대구시는 개·폐막식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15개 문화교류사업 전개
 - 다채로운 문화교류로 함께하는 환경 조성, 공동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문화적 소통 추구
- 한·중·일 공통설화인 ‘견우와 직녀’ 스토리를 배경으로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뮤지컬 ‘견우지애’ 공연
 - 공통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뮤지컬로 3국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
- 한·중·일 락 밴드(9개 팀)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들의 열정과 미래 평화를 염원하는 ‘동아시아 락 페스티벌’ 개최
 - 청년 문화교류 사업을 일환으로 추진, 3국에서 활동 중인 유명 락 밴드들이 참여하여 락을 통한 화합과 열정 표현
- 대구의 대표적 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에 교토의 민간예술단 참가
 - 가미 시바이(그림연극), 타다미 악기 연주, 전통 공예품 제작 체험, 거리퍼레이드에 참가
 - 양 도시 간 대표축제 간의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 및 도시 홍보에 큰 역할
- 교토의 대표축제인 ‘교토 오카자키 하레부타이’에 대구 예술단 참가
 -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대표축제를 통한 활발한 문화교류
- 교토의 3개 대학 연극팀과 대구 계명대 극예술연극회가 함께 한 대구와 교토의 대학생 연극반 교류의 형태로 ‘한일 대학생 연극제’ 진행
 - 대명공연문화거리에서 실험과 도전정신이 담긴 새로운 연극을 선보임으로써 젊은 연극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교류의 토대 마련
- ‘한·중·일 전통문화페스티벌’을 통해 대구의 판소리·국악관현악·민요 등과 중국의 장쇄납·변검 공연 등, 일본의 로쿄쿠와 같은 대표적인 전통음악 교류
 - 한·중·일 민간 전통공연 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교류기반 제공
 - 중국의 장쇄납과 변검, 일본의 로쿄쿠(전통 인형극), 수제천, 민요, 탈춤, 한국의 판소리, 태평무 등 전통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마당’을 통해 대구·창사·교토 고등학생 60명이 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문화예술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형태로 진행
 - 교토의 시각예술 분야 체험, 대구의 전통무용, 한류문화 체험, 창사의 전통

- 수공예 제작기법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문화 마인드 함양
- 청소년 예비예술가 등이 한·중·일 문화를 교류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점을 발견, 미래의 우수 예술가 발굴·육성의 계기
- ‘동아시아 3색 전통극 페스타’를 통하여 교토의 교겐 츠치구모, 창사의 상극 십삼복, 대구의 창극 춘향전 등 한·중·일의 대표적인 전통극 공연
- 전통극 공연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의 의미를 되새김.
- 3개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모여 창작 협업을 통해 아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 사업’ 진행
- 각 도시의 30세 미만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5명 선발, 창사·대구·교토 순회
 - * Feldstärke[펠트슈텔케] 전계강도(電界強度)를 가리키는 독일어로,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탄생되는 에너지와 그것에서 생겨나는 관계성의 강도에 붙여진 프로젝트명
- ‘동아시아 문학제’는 3국 문학의 서로 다른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고, 문학적 공감을 나누고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추진
 - 정형시포럼, 이상화고택과 대구문학관 탐방, 문학특강 및 문학콘서트 진행
- ‘동아시아 춤축제’는 한·중·일 민간 무용단체 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춤 공연을 즐기고 이해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교류기반 마련
- 창사 음악홀에서 열린 ‘한·중·일 음악교류회’를 통해 창사음악예술단, 대구시립예술단, 교토시립예술단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

<표 II-5>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주요 교류활동 내용

사 업 명	추진 내용	비고
개막식	○ 일 시 : 2017. 5. 12.(금) 19:30 ○ 장 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 내 용 : 공식행사, 부대행사 - 한·중·일 도시대표 개막선언, 축하영상, 주제공연, 청소년 합창공연 등(안), 버스킹, 도시소개 홍보관 운영	3개 도시 참가
폐막식	○ 일 자 : 2017. 12월 중 ○ 장 소 : EXCO ○ 내 용 : 결과물 전시 및 공연 등 - 2017 한·중·일 문화교류 및 협력 관련 활약상 공유, 문화협력 활동 우수 예술인, 시상식 등	3개 도시 참가
대구·창사·교토 간 『공동 문화교류 협약』 체결	○ 공동의 문화교류 협약 체결 ○ 3개 도시의 문화예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촉진 및 도시 문화발전, 도시이미지 개선,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도시 참가
보자기 축제	○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한·중·일의 공동 콘텐츠인 ‘보자기’가 갖고 있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문화코드로 ‘대구 보자기축제 개최 ○ 일 자 : 2017. 9. ○ 장 소 :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일대 ○ 주요 프로그램 - 보자기 문화전, 시민참여 놀이문화체험 등 - 삼국 전통복식쇼, 보자기 패션쇼 등	3개 도시 참가
동아시아 락페스티벌	○ 3국 청년들이 ROCK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문화적 일체감 형성 - 일 시 : 2017년 9월 24일(일) - 지구의 날 기념축제인 대구시민생명축제와 연계 ○ 삼국 청년문화 네트워크 - 청년예술가들이 중심인 대중음악을 통한 청년간의 네트워크 개발 및 추후 민간차원에서의 연계 가능 ○ 삼국 인디문화발전의 장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며 삼국의 인디뮤지션들의 연대강화 및 문화협력 방안 모색	3개 도시 참가

자료 :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총 자료를 재구성함

사 업 명	추진 내용	비고
201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참가 (대구예총)	○ 기간 : 5. 27 ~ 28. ○ 장소 : 시내 중심지 ○ 내용 : 「동아시아문화도시2017 교토」 구역에서의 퍼포먼스 및 공연, 체험 ○ 파견자 : 18명 - 야쌍일행의 가미시바이(2명) - 일본 타타미 악기제조(10명) - 청동 그룹(4명) - 사무국(2명)	교토 참여
한·일대학생 연극제 (연극협회)	○ 사업기간 : 6. 14 ~ 18. ○ 참가극단 - 대구(1) : 계명극예술연구회 - 교토(3) : 겐토우극장, 극단 샤이푸, 나카유비	교토 참여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 (미술협회)	○ 기간 : 6. 17 ~ 7. 10. ○ 내용 - 참여 작가 : 대구(5명), 창사(5명), 교토(5명) - 상호방문 프로젝트 활동 · 창사 : 6. 17 ~ 22 · 대구 : 6. 23 ~ 27 · 교토 : 7. 2 ~ 10	3개 도시 참여
한·중·일 전통문화 페스티벌 (국악협회)	○ 일시 : 8. 11.(금) 19:30 ~ 21:10(100분) ○ 장소 : 대구코요롱야외음악당 ○ 내용 : 문화도시들의 대표적인 전통음악 공연 - 대구(판소리, 국악관현악, 민요, 사자춤) / 중국(장쇄납, 변검) / 일본(로쿄쿠)	교토 참여 (연변 참여)
동아시아 문학제 (문인협회)	○ 기간 : 8.15 ~ 17 ○ 사업내용 - 한 중 일 정형시 포럼 - ‘아시아의 꿈, 문학’이라는 주제로 특강 - 시노래, 시가곡, 시낭송 등 다양한 예술 공연 - 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문화체험 및 문학기행	중일 타 도시 참여
한·중·일 사진전 (사진작가협회)	○ 행사기간 : 8. 30~10. 30. - 한·중·일 사진 전시회 개최 : 8. 29~9. 3. (문화예술회관 제6~10전시실) - 일본 사진작가 15명 대구 초청 : 8. 30~9. 3. - 한국 사진작가 10명 교토 방문 : 10. 27~30. ○ 전시대상 : 한·중·일 사진 작품 125점 (한국50, 중국25, 일본50)	교토 참여

자료 :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총 자료를 재구성함

사 업 명	추진 내용	비고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마당 (예총)	○ 행사기간 : 8. 5.(토) ~ 23.(수) - 8. 5~9. : 교토(시각예술 분야 체험) - 8.11~4. : 대구(전통무용, 한류문화, 시티투어 등) - 8.19~23. : 창사(중국전통 수공예 제작기법 체험) ○ 참가대상 : 대구-창사-교토 고등학생 60명 ○ 주요내용(대구) - 오리엔테이션, 개회식, 대구문화투어, 대구자연투어, 공연문화학습, 한국문화체험, 문화의밤 등	3개도시 참가												
동아시아 춤축제 (무용협회)	○ 일시 : 9. 7.(목) 19:30 ~ 21: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 내용 : 한·중·일 전통춤, 창작무 공연(6개 작품) <table border="1"> <tr> <td>중 국</td> <td>룡주경도(전통무용)</td> </tr> <tr> <td>일 본</td> <td>대지에 사죄하다(전통무용)</td> </tr> <tr> <td>한 국</td> <td>Black and White(현대무용)</td> </tr> <tr> <td>일 본</td> <td>Disco(현대무용)</td> </tr> <tr> <td>중 국</td> <td>水墨(전통무용)</td> </tr> <tr> <td>한 국</td> <td>佳人之舞(전통무용)</td> </tr> </table>	중 국	룡주경도(전통무용)	일 본	대지에 사죄하다(전통무용)	한 국	Black and White(현대무용)	일 본	Disco(현대무용)	중 국	水墨(전통무용)	한 국	佳人之舞(전통무용)	3국 참가
중 국	룡주경도(전통무용)													
일 본	대지에 사죄하다(전통무용)													
한 국	Black and White(현대무용)													
일 본	Disco(현대무용)													
중 국	水墨(전통무용)													
한 국	佳人之舞(전통무용)													
한·중 미술전 (미술협회)	○ 행사기간 : 9. 25 ~ 10. 24. - 대구 미술전 : 9. 25 (월) ~ 29.(금) / 문화예술회관 제11~12전시실) - 창사 미술전 : 10. 20 (금) ~ 24.(화) / 창사미술관 ○ 전시대상 : 한·중 미술작품 100점(한국50, 중국50)	창사 참여												
동아시아 3색 전통극 페스타 (예총)	○ 일시 : 9. 21.(목) 19:30 ~ 21:00 ○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공연장 ○ 내용 : 한·중·일 대표적인 전통극 공연(3개 작품) - 교토 : (교겐)츠지구모 - 창사 : (상극)십삼복 - 대구 : (창극)춘향전	3개도시 참가												
오페라 갈라콘서트 (음악협회)	○ 일시 : 11. 14.(화) 19:30 ○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공연장 ○ 내용 : 일본, 중국, 대구 갈라팀 합동공연 - 오페라 솔로 아리아 퍼레이드(희극/비극 오페라) - 오페라 앙상블 중창, 3국 오페라 성악가 하모니	3국 참가												

자료 :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총 자료를 재구성함

■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활동 이미지

	
컬러풀대구페스티벌 - 교토팀 그림연극 공연	교토팀 컬러풀대구페스티벌 거리퍼레이드
	
(한일대학생 연극제) - 계명대학교 '커트'	교토 리즈메이킹대학 - '56db' 공연
	
'펠트슈텔케' 대구팀 창사 방문 프레젠테이션	창사, 교토팀의 대구예술발전소 방문
	
창사, 교토팀, 대구에서 작품 최종 프리젠테이션	대구, 창사팀 교토아트센터 방문

<그림 II-3>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활동 이미지

제3절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기획·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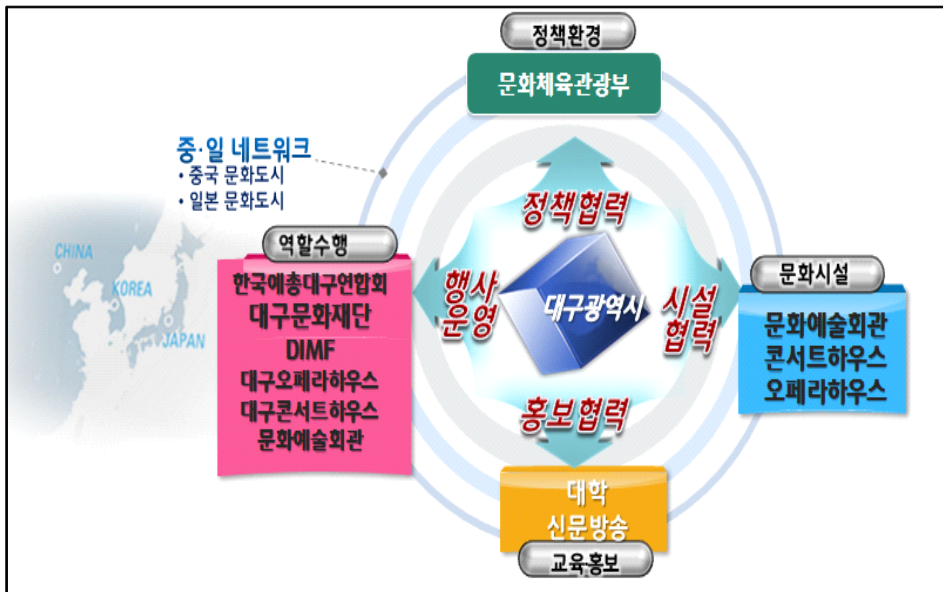
- ‘문화로 흥(흥)하고 흥(흥)나는 대구’를 주제로 기존 운영축제와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극대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문화교류 소통 플랫폼 형성을 목표로 개·폐막식 등의 문화프로그램 계획과 시행
- ‘동아시아, 고동치다’라는 슬로건으로 서로간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아시아 평화발전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취지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 대구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고자 전문가 자문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음악, 오페라, 무용, 사진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 실행
- 기획에서부터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노력
 - 대구시는 대구예총을 포함한 회원단체 등의 수요에 따라 파트너십을 맺어주는 역할 추구

■ 한·중·일 공동 문화프로그램 경험 확대

- 2017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교토가 참여했고, 펠트슈텔케 인터네셔널(미술협회)과 동아시아문학제(문인협회), 한·중·일 청소년문화마당(예총), 동아시아춤축제(무용협회), 동아시아 3색 전통극 페스타(예총) 등에 3개 도시 모두 참여
 - 문화콘텐츠 공동 발굴, 문화적 소통과 교류 토대 마련

■ 사업추진 협업체계의 구축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많은 대구 문화예술단체가 참여
 -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대구의 역량 있는 예술인 발굴 및 활동 기회 제공



<그림 II-4>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협업체계

-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언론·기관·단체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운영
 - 문화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창사 및 교토시의 참여방안, 각 도시별 개막식 참여 프로그램 등 자문
 - 개·폐막식 행사, 교류프로그램, 유관기관·단체의 역할·협조,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등 다방면에 대한 자문 수렴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및 청년 예술가들에게 국제적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문화마인드 함양과 국제적 예술 감각 형성에 기여

■ 문화교류 지속화에 대한 공통적 합의

-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지속적 문화교류를 약속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 단발성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진화시켜나가는 지방외교의 새로운 모델 가능성 제시
 - 예술계 대학생 교류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문화교류, 시민 문화예술단체 대학 및 기업의 문화교류 기회 창출, 3개 도시의 폭넓은 교류 촉진 노력 등
- 문화도시 내 효과적인 축제, 소통, 행사, 공연, 전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3국 국민의 상호 지속적 방문 촉진

■ 다양한 분야의 도시 간 협력으로 파생효과 창출

- 도시 간의 문화적 정체성 제고,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도시문화 발전과 도시 이미지 개선, 사회·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성과
- 지속적 공동문화교류 협약 외 사회·경제·관광 등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로 확대

■ 지역문화 부흥과 미래세대 육성 기회 확대

-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 도시의 문화를 알리면서 열린 자세로 문화예술을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대구의 독특한 문화와 문화산업 발굴 및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 제공
- 3국이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을 추진하고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문화 세대의 육성과 교류지원의 물꼬
- 문화도시 간 합의에 따라 개·폐막식에 자국의 공립 예술단을 파견하여 함께 연습하고 공연함으로써 친목 형성 및 높은 관심 유발

■ 민간의 협력 강화 및 시민 참여기회 확대

-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연계하여, 전수자 전통공연 실시 및 공방 개방
 - 대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전통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버스킹, 아트마켓 등을 통해 시민 예술가 등의 참여기회 확대
- 가족, 노인, 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시민이 참여
 - 인기가수 초청과 같은 단순이벤트는 줄이고 전시, 체험, 공연, 놀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2. 한계

■ 운영 측면에서 전담인력 부족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활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의 외형은 구비되었지만 사업기간이 짧고 사전 준비과정이 미흡해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
 - 사무국 공무원 3명으로 1년간 교토, 창사를 오가며 공식행사(개·폐막식), 문화교류사업(13개 사업), 보자기축제 등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와 전담 인력이 부족

<표 II-6>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운영 비교

구 분		광주	청주	제주	대구
추진 (조직) 위원회	위원수	28명	21명	27명	15명
	위원장	정동채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지원포럼회장)	시장 (명예위원장-이 어령 前장관)	도지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 (자문위원회)
사무국	인원	6명(정규3, 계약3) *사무국장(4급) 외부영입	7명(정규4, 계약3) *사무국장 외부영입	6명 (정규4, 계약2)	5명 (정규3, 계약2)
	공간	김대중컨벤션센터	별도 사무실	도청 내	시청 내
	소속	별도기구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정책과 국제문화협력팀
	기간	'14.3 ~ 10월	'14.11 ~ '15.12	'15.11 ~ '16.12	'16.7 ~ '17.12
문화 행사	계	37개 사업	24개 사업	20개 사업	15개 사업
	신규	17개 사업	19개 사업	5개 사업	3개 사업
	기존	20개 사업	5개 사업	15개 사업	12개 사업
사업 예산		36억원	23억원	26.7억원	26.7억원

■ 프로그램 교섭과정의 애로

- 대부분의 교류사업의 경우 한·중·일 공통 콘텐츠를 발굴하여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나, 일부 교류사업의 경우 시간과 예산의 한계, 교류사업 진행의 사전교섭에 어려움.
- 교토, 창사, 대구가 함께 교류한 사업은 38% 수준
 - 13개 교류사업 중 창사, 교토, 대구가 함께 참여한 사업은 5개 사업
 - 창사, 교토에서 교류할 문화예술단체 교섭이 원활히 되지 않아 중·일 다른 도시에서 참여한 사업은 2개 사업
 - 교토, 창사 중 1개 도시에서만 참여한 경우가 5개 사업

■ 시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미흡

- 2016년 8월 28일 대구가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공식적으로 선정된 이후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홍보가 미흡
-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계획 수립과 행사 시행, 홍보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아쉬움이 있음.
 - 향후 국제문화행사 추진 시 시민 공감 및 동참 차원에서 사전홍보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짧은 준비기간, 예산, 인력 부족 등 내부적인 문제와 동북아 정세 불안정 요소 증대 등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축적 및 파급효과 미흡

-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단발성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축적과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구체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이후에도 3개 도시 간, 그리고 미래 지정되는 문화도시 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상호 교류의 성과를 묶어내고 보다 고도화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이 필요함
 - 교류채널의 정기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 상호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컨퍼런스, 전시회 등에 대한 참가지원 확대

- 문화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이란 사업기간은 너무 짧음.
 - 이는 상호문화를 이해, 존중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확인하여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근본취지와도 거리가 있음.

■ 지속적인 추진체계 부재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한시조직이 아닌 항구적인 조직으로 구축되어야 함.
 - 현재의 사업 추진체계는 행정 중심의 한시적 조직인 전담 TFT 형태이므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 필요
-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모델인 유럽문화수도들도 단년도 사업이지만 법적 지위는 재단, 비영리법인, 트러스트 등의 형태를 유지한 채 지정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사업을 추진
 - 프랑스 릴(Lille) 3000이나 영국 리버풀 걸쳐 컴퍼니 등이 대표적 예
- 사업 종료 이후에도 3개 도시 간, 그리고 이후 지정되는 문화도시 간에도 지속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임.

■ 공연 및 전시 위주의 프로그램

-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 개선
 - 문화교류의 폭을 확대하여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와 청소년, 관광사업자, 서비스 종사자 등 다양한 민간교류 영역으로 확대
 - 다큐멘터리 공동제작과 방영과 같은 미디어 교류, 신문 칼럼 상호 기고 등을 고려

■ 사업의 장기적 비전 수립 필요

- 문화교류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 검토
 - 3개 도시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3개 시 문화교류 사무국’을 설치 필요
 - 각기 민족주의적 성향이 뚜렷한 한·중·일이 교류 및 협력 제도화를 위해서는 집단 정체성이 중요
- 3개 도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이 공고하게 뿌리내리게 되면 점차 타 문화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임.



제3장

유사사례 분석

제1절 사례대상 선정

제2절 사례분석 내용

제3절 시사점



제3장 유사사례 분석

제1절 사례대상 선정

1. 사례 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 선정기준

- 연구의 목적과 공통점을 갖는 문화수도 선정과 정책 추진 등을 기준으로 벤치마킹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함.

■ 분석방법

- 분석의 방법은 문화적 분석으로 정성적 방법을 취하며, 각 사례의 전략과 적용사례를 연구
- 각 사례의 발전과정 상에서 대두되었던 사회적 변화 등 분석
- 제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비전 공급자들과 구성 주체들의 활동사항 분석

2. 선정 사례

- 유럽이나 미주권역(라틴아메리카) 등에서 문화가 해당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재생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수도 프로젝트를 추진
- 이 연구에서는 유럽문화수도와 미주문화수도 정책의 목적과 프로그램, 시행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권역 내 유럽문화수도(1985년~), 미주문화수도(2000년~) 선정·운영

<표 III-1> 선정사례 대상

유럽문화수도(ECOC)	미주문화수도(CAC)
○개최 도시 수 : 54개 도시(2016년 기준) ○최초 도시 및 연도 : 아테네(그리스), 1985년 ○2017년 개최도시 : 뭉스(벨기에), 필젠(체코) ○특이사항 : 2033년까지 개최도시 선정	○개최 도시 수: 18개 도시(2016년 기준) ○최초 도시 및 연도 : 메리다(멕시코), 2000년 ○2016년 개최도시: 발디비아(칠레) ○특이사항 : 매년 아메리카 도시 하나씩 선정
	

제2절 사례분석 내용

1.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 배경 및 취지

-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문화정책 프로그램
 - － 유럽에 대한 자각과 다양한 문화 영역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의지로 유럽공동체 수뇌부들이 모여 채택
 - －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 그리스 문화부장관) 발의, 1985년 출범
- 매년 바뀌는 문화수도를 중심으로 문화 생산과 소비, 확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규모의 문화운동³⁾
- 유럽 각 국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알리면서 유럽연합 국민들 상호 간에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출발
- 유럽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 확대, 문화를 통한 도시 성장, 유럽 시민들 간 상호 이해 증진, 공동체의식 및 문화 관련 복지 확산이 목표



■ 주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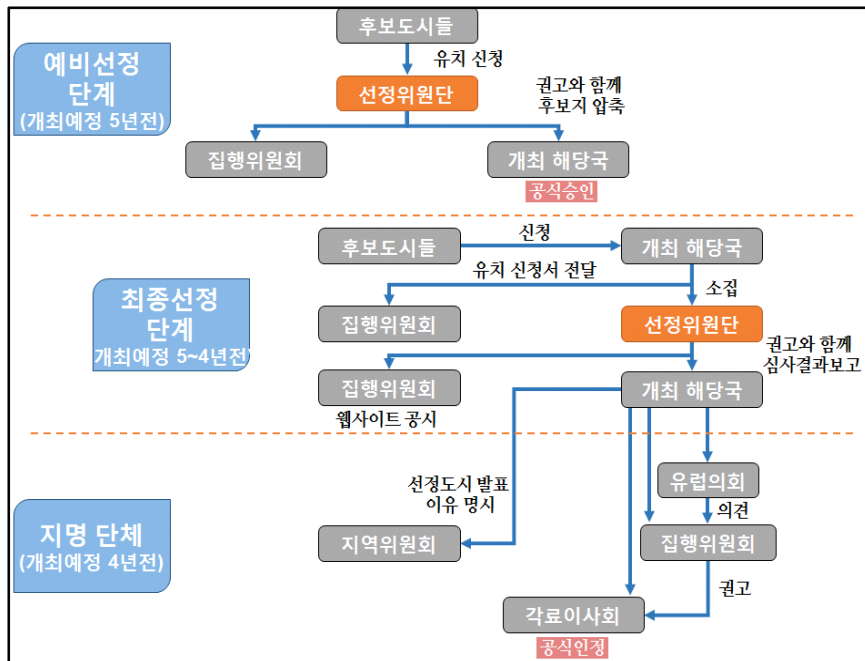
- 처음 주창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1985년), 2016년 현재 총 54개 도시 선정
 - － 32년 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 문화도시로서 대내·외적 브랜드 제고, 관광객 증가, 문화콘텐츠산업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 창출
 - － 문화수도 선정 이후, 시민들의 자부심 및 자신감 함양, 문화부문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
- 유럽문화수도 출범 초기단계부터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적 전통과 자산을 내세워 유치하고자 치열하게 경쟁
 - － 초기에는 유럽문화수도 행사로 얻는 기대효과보다 브랜드가 주는 상징적 측면에 더 큰 의미를 부여
- 유럽문화의 달(European Cultural Month)과 함께 병렬적으로 추진(1992~2003)
 - －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3) 조선일보(2015.11.4.), '매년 바뀌는 유럽 문화도시, 도시재생·지역 개발 효과'

-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행사 기간과 도시 수 확대
 - 1980년대 말까지는 1개의 선정도시에서 하절기 2~3달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진행,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 1990년대 들어와서 개최연도 기간 전체에 걸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환
 - 2000년대 이후부터는 2개 도시에서 1년간 동시에 문화행사 진행, 유럽연합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유럽연합은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 ‘문화수도’라는 브랜드 타이틀을 부여하면서 일정액의 재정적 예산 지원
 - 재정 지원의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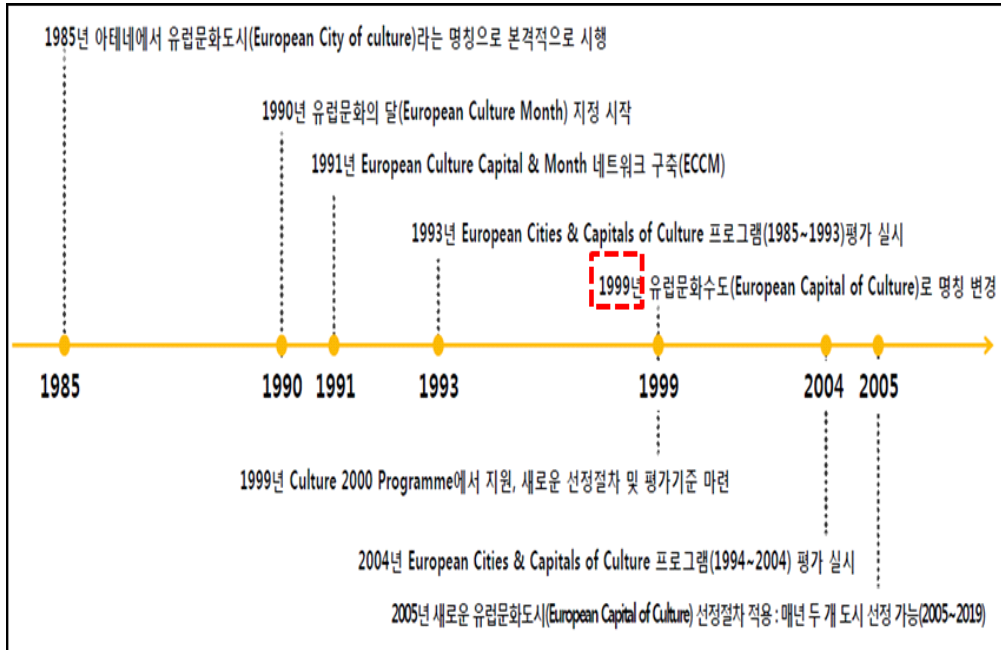
- 유럽연합각료이사회가 유럽문화수도 도시를 선정
- 선정 과정은 ‘사전 선정(pre-selection)’과 ‘최종 선정(final selection)’의 두 단계로 나뉘며, 사전 선정된 공모도시들만 최종 선정의 심사대상이 됨.
 - 1단계로 선정위원단의 사전 선정, 2단계로 선정위원단의 최종 선정, 3단계로 이사회의 지명 및 확정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침.



<그림 III-1> 유럽문화수도 선정과정⁴⁾

4) 윤성원의 'Shaping European Identity through Cultur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2009)' 자료를 재구성

- 유럽문화수도 선정은 본격적인 행사를 하기 최소 4년 전에 선정,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
- 유럽문화수도 희망도시의 지원 의사는 해당 연도 6년 전까지 표명하여야 함.



<그림 III-2> 유럽문화수도 발전과정

■ 프로그램 평가 기준⁵⁾

-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예술적 운동과 스타일을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조하는가
- 창의적 활동을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발전시키는가
- 타 지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가
- 유럽 지역 일반대중의 대다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 다른 지역과 유럽문화의 이질적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는가
- 유럽인들의 방문을 해당 프로그램이 증대시킬 수 있는가
-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 도시의 사회발전과 문화생활 영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가

5) 이순자 외(2008), 유럽문화수도 추진전략의 성과와 시사점 내용을 재구성

■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효과

- 문화적 인프라 개선과 내실화 등 장기적 차원의 지역 발전
 - 하드웨어적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시기반시설 확충, 역사·문화적 장소의 환경 개선, 관련 일자리 창출 등
- 새로운 단체의 지속적 등장과 활발한 활동 전개
 - 문화 활동 및 문화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기획·운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강화
- 문화도시로서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해당 주민들의 자신감 및 자긍심 제고
 - 국내외 대중매체 홍보에 힘입은 방문객 증가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예술인들 시연의 장 및 상호교류 촉진 등 문화활동의 역동성 부여

2. 미주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 배경 및 취지

- 유럽문화수도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추진
- 라틴아메리카 문화영역에서의 통합 수단
 - 1997년에 아메리카 대륙 차원에서 제기, 1998년 미주문화수도(CAC) 탄생
- 라틴아메리카의회 및 유럽의회의 지지와 미주기구의 승인
 - 국제적 언론매체인 안테나 3 TV 인터내셔널(Antena 3 TV Internacional)와 디스커버리 네트워크(Discovery Networks Latin America/US Hispanic)에서 미주문화수도 소개 및 홍보 등 협력⁶⁾
- 라틴아메리카 내 각 국가(지역)의 다양성 보호 및 존중,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 취지
 - 공동의 문화적 유산 강조, 지역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 확대
- 미주기구(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후원으로 프로젝트 시행
 - 비영리 독립된 조직으로 국가 간 문화적 교류협력 증진,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및 홍보 목표



6) 정정숙(2008), 아시아문화수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주요 사항

- 멕시코 메리다를 시작(2000년)으로 11개국 18개 도시가 선정(2016년 기준)
- 민간단체 ‘미주문화수도기구(American Capital of 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해 매년 라틴아메리카 도시 중 하나를 문화수도로 선정,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수행
- 지역적 다양성과 문화적 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타 지역 문화도시들과의 협력 강화, 타 대륙 문화수도와의 협력기반 구축사업 등 추진
- 미주문화수도 메달 수여
 - 미주문화수도기구 집행위원회, 사업의 취지에 부합도가 큰 인물이나 기업, 기관/단체에 미주문화수도 금메달 제정(2003년 6월) 수여

■ 선정 주체

- 매년마다 지원한 미주 대륙 도시들 가운데 하나를 미주문화수도기구가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미주기구가 문화수도로 승인
- 국제문화수도사무국 (Bureau Internacional de Capitales Culturales)의 회원인 미주문화수도기구(American Capital of Culture Organization)에서 선정
 - 국제문화수도사무국(Bureau Internacional de Capitales Culturales)⁷⁾은 미주문화수도기구, 미국문화수도기구, 브라질문화수도기구, 카탈루냐문화수도기구 등이 소속된 통합 기구
 - 미주문화수도기구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OAS가 미주 문화수도 선정 절차에 개입하지는 않음.

■ 미주문화수도 사업의 한계점

- 미주문화수도 사업은 선정 방식과 운영체계 상 한계점 보유⁸⁾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소재하고 있는 미주문화수도기구의 규모 및 운영주체가 불분명
 - 미주문화수도에 선정되었을 때 소수 언론을 통한 홍보 효과에 주력,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어려움.
 - 미주문화수도 선정과정 및 선정 평가 관련 항목이 명확하지 않음.
 - 선정년도 2~3 개월 전에 선정이 이루어져 프로그램 준비 기간이 불충분함.

7) <http://www.cac-acc.org/canales.php>

8) 정정숙(2008), 아시아문화수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제3절 시사점

- 상기에서 살펴본 유럽문화수도, 미주문화수도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지역민과 언론과의 소통에 주력

- 문화수도 개념 자체에 대한 지역민과 언론과의 소통 및 공감대 확산 강화
 - 사업 초기 문화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내 인식 부족으로 사업효과 창출에 한계
 - 개념의 모호성, 목표의 불명확성,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스템 문제 등의 극복 노력
-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 개념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
 - 소통의 부재는 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 언론 매체 및 일반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
- 각종 문화행사가 연중 진행되는 동안 TV, 광고, 인터넷, 라디오, 신문 등 제반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개최도시는 유럽문화수도 개최지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방문객 유치 확대 등의 파생적인 효과 창출

■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추진

- 과도한 프로그램 지양, 영향력 있는 적정 수의 질 높은 프로그램 시행
 - 많은 프로그램은 장기적 차원에서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일관성 유지 곤란
- 문화수도 선정 도시의 창의성을 도출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 문화공동체의 신뢰감 제고, 문화산업의 발전과 창의계급 양성, 관광 활성화
- 문화수도 기간 이후에도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
- 음악 콘서트, 축제, 전시예술,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개최, 해당 지역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시 전체의 발전정책과 연계 추진

- 개최국으로 하여금 문화행사를 매개체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 유도
 - －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선정도시를 포함한 주변의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여러 문화기반시설 외 교통, 숙박시설 등 해당 도시가 속한 지역의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 － 유럽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중장기적으로 고취시키는 효과
- 개최도시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전반에 걸쳐 대외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 등

■ 기본적 운영체제 필요

- 동아시아 차원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솔력 있는 운영체제 필요
 - － 유럽문화수도의 경우,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서 문화수도 선정과 운영의 명확한 구심점 기능 수행
 - － 미주문화수도의 경우, 리더십이 미흡한 민간기구에 의한 운용방식, 선정과정과 기준 미흡과 같은 문제점으로 문화수도의 효과에 대한 우려 존재



제4장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제1절 교류 활성화 기본원칙 및 방향성

제2절 지속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제3절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4장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제1절 교류 활성화 기본원칙 및 방향성

1. 기본원칙

■ 문화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

- 한·중·일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문화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
-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쌍방향적 교류와 소통으로 새로운 융합문화를 창출하는 융광로 기능 추구
- 상호 관련성이 큰 문화자산을 매개로 대칭적 협력사업 추진
 - 3국의 문화자산 중 관심이 많거나 교류를 통해서 상호 효과 창출이 가능한 자산을 교류의 주요 매개로 활용
 - 창사의 미디어아트 분야의 대칭점으로 대구의 영상미디어센터

■ 전략적 대상으로서 교류협력

- 교토와 창사를 일본과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대상으로 인식
 - 글로벌 정책의 교두보이자 거점으로서의 지위, 상호 이해와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절실한 파트너라는 인식 필요
 -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문화교류의 지속성 유지 및 범위의 확대

- 문화교류는 지속적인 만남과 인물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서 유지
 - 교류단체와 구성원들의 방문기회 확대를 위해 포럼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제공

- 지자체 및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상호 문화 이해를 촉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생활문화와 연관된 시민 차원의 문화 이해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함.
- 대학생 문화교류사절단 및 문화통신사(Global Culture Co-ordinator) 교류

■ 일관적 리더십을 갖춘 운영주체

-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하기 위한 조정기구 배치
 - 사업종료 이후에도 전문조직과 사업을 통해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 효과 창출
- 활동 범위와 내용에 있어 유관기관들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적합
 - 동아시아문화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 수행

(사례) 유럽문화수도 영국, 「리버풀 컬처 컴퍼니」

- 문화 교류협력, 도시개발 등 유관부서와 연계 '리버풀 컬처 컴퍼니' 운영
- 유럽문화수도는 단년도 사업이지만, 지정년도 이후에도 실천과제 지속적 추진
 - 수준 높은 문화 이벤트 구현, 지역사회의 지속적 참여 유도
 - 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

2. 방향성

■ 단계적인 접근과 민간 참여 강화

- 3국 중 특정 국가의 관심만으로는 안 되므로 협의를 통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시도하기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상호 완화해 나가고,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정책 수립과 지원은 지자체가, 교류 행위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직접 수행

■ 지역문화의 정수(Essence)를 보여주려는 열의와 일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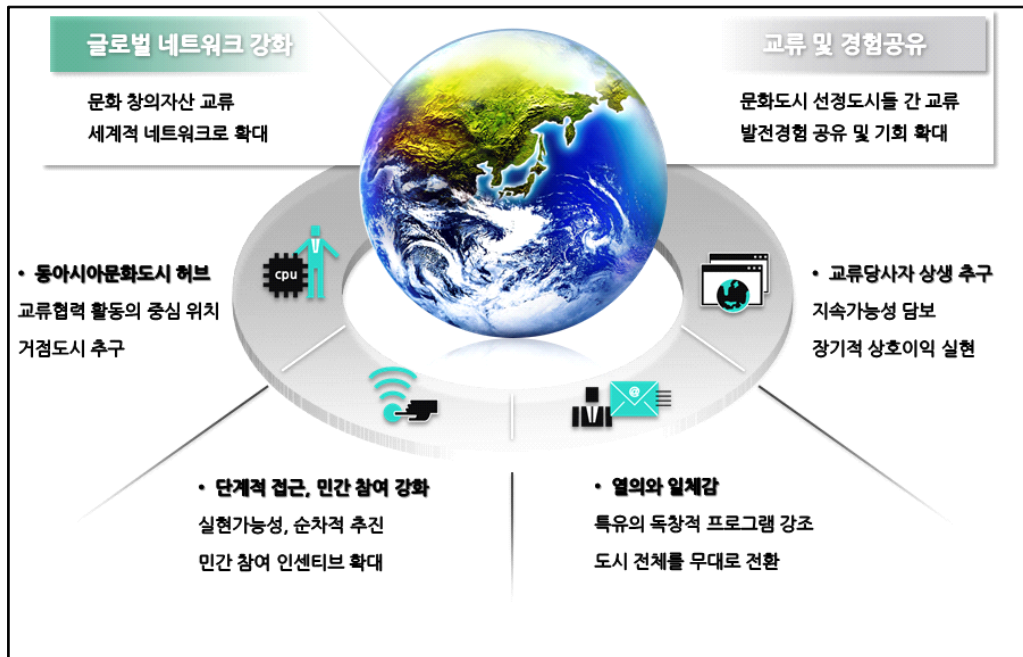
- 3국의 공통적 문화와 같이 호흡하면서 대구만의 독창성을 지닌 프로그램 강조
 - 특화되지 않은 나열식 행사 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한 비중과 우선순위에 차별화 필요
- 대구시 문화시설단체 상호 간의 조정과 협력, 공유 강화를 통한 집중력 필요
 - 대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 등 지역문화 공립시설단체들과, 대구예총 및 산하단체·대구민예총 등의 민간 문화단체 결집 효과 창출
- 도시 전체를 무대로 전환시켜 대구문화의 다양성을 생생하게 어필

■ 교류당사국 간의 상생 추구

-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생구조가 필수
 - 자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의 반감
 - 다른 분야에까지 파생, 상호 간의 불신으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 도래 가능
-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교류협력 유도
 - 단기적으로 상호이익 균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면 문화 교류협력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허브’ 지향

-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 및 다양성을 촉진하는 중심도시(거점, 허브) 역할 추구
- 문화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 상생 효과를 창출하는 동반자적 관계 인식과 교류·협력 활동의 중심에 대구가 위치하는 것을 목표



<그림 IV-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

제2절 지속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1. 대구·창사·교토 간 문화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배경

-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들의 본격적 실행을 위한 체계로서 거버넌스가 필요
- 문화예술을 주축으로 인력교류, 이벤트교류, 학술연구교류, 프로젝트 공동제작,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관련 단체(업체)들 간의 거버넌스는 중요

■ 주요내용

- 대구·창사·교토 관계자들 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교류협력사업을 총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주무부서와 담당자 지정
 - － 대구문화재단, 오페라재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콘서트하우스 등 대구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문제점 개선 등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 3개 도시의 문화예술 참가단 교류사업 진행
 - － 교류협력 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참가단을 구성 상호 방문 시행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교류 프로그램 구축 및 지원
 - － 교류 및 진출 관련 정보 제공(재정적, 법률적, 행정적 지원 등)
- 각 도시의 문화예술 이벤트 등과의 연계 방안 고려
 - － 예를 들어 대구시 참가단이 창사를 방문할 경우, 창사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이벤트 등의 유관 행사에 참여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가 및 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교류체계를 형성하여 각 개별단체 및 도시 차원의 문화적 발전 도모
- 문화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있는 유관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교류협력 사업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및 교류협력사업의 축적된 파급효과 창출

2.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 주도적 설립·운영

■ 추진배경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도시들 간의 문화교류 플랫폼 필요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매개로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정기적인 문화 교류가 가능한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
- 동아시아 차원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솔력 있는 운영체제 필요
 - 유럽문화수도의 경우,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서 문화수도 선정 기준과 평가, 운영의 중심점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화수도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
 - 미주문화수도의 경우, 리더십이 미흡한 민간기구에 의한 운용방식, 선정과정과 기준 미흡과 같은 문제점으로 문화수도의 효과에 대한 우려 존재

■ 주요내용

- 1단계로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를 설립 후 2단계로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로 확대 창설
 - 아시아 문화 공동 콘텐츠 발굴, 협력 프로그램 구상 등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 문화도시로 확대
 - ‘아시아 문화페스티벌’ 도시별 순회 개최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으로 확대, 발전방안의 구체화

■ 기대효과

- 장르별 문화콘텐츠 공동 발굴과 동아시아 문화교류·소통의 토대 마련
- 젊은 세대의 폭넓은 교류와 민간의 지속적 교류기회 창출 등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교류 촉진과 아세안 문화도시와의 연계효과 창출

3.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DB 구축 운영

■ 추진배경

- 예술가 DB, 예술기관 DB, 아시아문화정책 정보의 취득 및 취합 등의 운영을 통해 향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예술가 DB 목록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기관별, 장르별, 문화정책 정보 DB 구축·운영 및 업데이트
- 레지던스 정보 DB 목록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장르별, 모집기간별 DB 구축·운영 및 업데이트

■ 기대효과

- 동아시아문화도시 상호 간에 필요로 하는 문화교류에 관한 서비스 공유로 이해 증진

4. 문화콘텐츠 인터넷 포털 설립

■ 추진배경

-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 및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모색 필요
- 국경 없는 문화콘텐츠 유통 채널로서 구축, 한정된 내수시장을 공동의 역내시장으로 확대

■ 주요내용

-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디지털콘텐츠가 집대성되는 데이터베이스, SNS 통합체
 - － 게임, 음악, 영상물, 출판물(e-book) 등 3국 디지털 콘텐츠를 총 망라하여 한 곳에 모아 유통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정 담당자들이 각 도시의 전문가를 선발,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 운영
- 동아시아문화도시 내 제작자 및 사용자 간 소셜 네트워크 강화
 - － 사용자 간 자유로운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 3개 도시 문화콘텐츠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
- 동아시아문화도시 시민이 정서적 통합에 이를 수 있는 소통의 장 기능
- 문화 창작자 및 생산자에게 있어서도 타 도시의 작품과 제작방식 등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자연스러운 인력교류의 기회 확대

제3절 교류협력 프로그램

1. 보자기축제의 킬러 콘텐츠화

■ 추진배경

- 보자기 문화는 포용의 문화를 의미
 - － 물건을 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내면의 마음을 싸는 타자와의 소통도구로 활용
 - － 대륙(중국)에서 내려온 문화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섬(일본)에서 건너온 문화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 보자기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문화코드로 승화시켜 동아시아 대표 문화축제로 브랜드화 하지는 취지

* 『이어령의 보자기 인문학』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내는 보자기 문화, 칸막이 없는 보자기 문화로 양극적 사고를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두 동사는 ‘싸다’와 ‘넣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싸는’ 민족으로 ‘보자기형’ 문화다. 보자기와 책가방을 비교한다. 보자기는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반면, 각이 잡혀 있는 책가방은 미리 칸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주요내용

- 동아시아 문화허브도시 대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 플랫폼 구축
 - － 문화 보자기 축제를 메인행사의 주제를 달리하여 매년 추진
- 문화 보자기 축제를 삼국 문화 브랜드화
 - －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 창작(미술, 음악, 공연, 공예 등)
 - － 섬유 패션 상품 개발 (섬유산업과 연계 신제품 전시 및 바이어 초청)
 - － 참여형 놀이문화(가위바위보 삼국열전, 비교 삼국 놀이문화 체험 등)

***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

가위바위보는 동아시아 대표 놀이문화로, 서로가 서로를 이김으로써 동그란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가위바위보’처럼 21세기에는 서로 물고 물리는 상생, 순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 ‘가위바위보’라는 세 나라의 놀이문화로 중국 대륙(바위), 한국 반도(가위), 일본 해양(보)을 상징

- 3국 명인 특별 전시전 : 보자기, 매듭, 자수, 천연염색 등
 - 교토의 경우 교유젠(교토식 비단염색) 전통 섬유공예가 발달
 - 창사의 경우 면(綿) 산업과 마황퇴한묘 2,200년 전 비단그림이 출토
- 섬유예술 체험관 : 보자기, 매듭, 자수, 천연염색 등 공예기법의 교육 및 직접 작품을 만들어 가져 갈 수 있는 공간 마련
- 전통 복식쇼 : 저명한 패션디자이너 초청 왕실, 귀족, 일반 복장 복식쇼
- 시민 패션쇼 : 시민이 직접 한복을 디자인 패션모델 도전(한,중,일 시민)
- 3국 전통복장 체험 크로마키 포토존 : 크로마키(chromakey) 기술을 이용, 삼국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편집·인화 등 올스탑 서비스 제공
- 보자기 학술포럼 : 동아시아 보자기 문화 및 예술 발전방향



<그림 IV-2> 보자기 관련 전시·체험·퍼포먼스

■ 기대효과

- 한·중·일 3국의 공통적 문화원형인 보자기를 통해 지속적 문화교류 발판 마련
- 획일화된 문화가 아니라 보자기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융합하는 창의도시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음.
- 보자기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세 도시가 구간과 획이 나뉘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의 다양성을 공감이라는 포용적 사고로 문화를 통해 합쳐지고 모든 것을 감싸는 포용력 확보
- 한국, 일본 명인작품을 통해 한자리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어 우수한 3국 문화의 다양성 향유

■ 관련 사례 : 청주 젓가락페스티벌(자료 : 청주 젓가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추진배경

- 젓가락을 핵심으로 한 생명문화 및 의식주의 서브컬처 세계화, 축제화, 콘텐츠화
-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원형인 젓가락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상품화를 통해 청주가 젓가락문화의 국제적 중심지로 발전
- 청주는 수저 유물의 보고, 국립청주박물관을 비롯해 청주권의 주요 박물관에 3,000여 점의 수저 유물 소장

* 『이어령의 젓가락 문명론』

젓가락은 짝의 문화, 정의 문화, 나눔과 배려의 문화, 한·중·일 3국의 공통된 문화원형이자 1000년 이상 한결같이 이어온 궁극의 디자인

▲ 추진 방향

- 한·중·일 3국의 참여 및 협력으로 첫 번째 젓가락 국제행사
- 젓가락의 날 행사, 전시, 학술 등 콘텐츠의 특성화, 차별화
- 청주시가 젓가락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젓가락의 날(11월11일) 선포, 젓가락문화로 국제교류의 장 확산

▲ 세부내용

- 젓가락의 역사 : 한국과 일본, 중국의 유물 젓가락, 젓가락과 함께 발전한 한·중·일 3국의 국수문화 소개, 젓가락연구소 개소
- 현대 창작 젓가락 : 한국·일본·중국의 창작 젓가락, 옷칠 젓가락과 분디나무 젓가락 등 창작 젓가락, 젓가락 공방과 협동조합 개소
- 문화상품 젓가락 : 작품과 생활용품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상품 젓가락
- 전시 - 젓가락특별전, 젓가락과 국수에 관한 회화작품, 조각 작품 설치, 젓가락과 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민화자료 등
- 경연 및 체험 - 젓가락 만들기 체험, 젓가락질 배우기, 젓가락 장단 맞추기



<그림 IV-3> 젓가락 제조 및 전시(젓가락연구소)

2. 인력양성 연수프로젝트 공동기획

■ 추진배경

- 인력교류 및 양성은 급변하는 문화적 트렌드와 지식, 기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인식공유 등을 통해 공동작업 활성화를 위한 장 제공
-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
 - 관련 인력의 역량을 배가시키고 향후 문화계에 기여할 신진 인재들을 적극 양성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필요
- 3국 간의 인력 양성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인적 네트워크 협력 기반을 구축
 - 창사의 경우,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의 쌍방향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3국 간의 공동기획 및 제작, 마케팅의 매개·촉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
- 대학, 기업 등 산학연과의 인력양성 추진 파트너십 구축
 - 상호 간에 신진 예술인력을 교환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서로 간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
- 3국 간의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인력 단기 연수프로그램 운영
- 관련 인력의 상호 프로젝트 참여 지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게임아카데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뮤지컬아카데미, (재)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아카데미 활용

■ 기대효과

- 상호교류를 통해 세계 문화환경 변화에 공동 대처와 공조 강화에 기여
- 예술인력, 기술인력, 청년 등 각 영역별 교류 활성화로 휴먼 네트워크 강화
- 인력교류 사업은 장기적으로 상호 간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 수행

3.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백서 발행

■ 추진배경

-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사회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문화교류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실행단계에서 애로사항 존재
-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한·중·일 문화교류 백서의 공동 발행
 - 문화도시 간의 교류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점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주요내용

- 3개 도시 간 공동백서 발간을 위한 사전 협의와 작업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래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위한 준비작업
- 공동작성 및 상호 협력적 공동 DB 구축과 공유
 - 향후 교류협력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 발간되는 공동백서를 한·중·일 3개 언어로 나누어서 발행하여 문화적 접근성을 견고히 함.
- 공동백서의 온라인 사이트 개설
 - 공동백서를 웹사이트에서 공유하여 정보접근 용이성 확보

■ 기대효과

- 공동백서 발행으로 상호 간의 정확한 문화교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분석하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나침반 기능 수행
 - 일반 수요자뿐 아니라 창작자들에게도 우수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로 제공

4. 문화산업 콘텐츠 페어 개최 및 참가 지원

■ 추진배경

- 상호 간의 문화산업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페어를 개최하고 관련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으로써 상호 간의 문화산업 활성화 기회를 제공
- 3개 도시의 문화산업계 이슈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 필요
 - 한·중·일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이므로 타 국가에도 영향력 전파
- 대구에는 e-fun 페스티벌(게임),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콘텐츠산업 관련 전시·박람회와 유관 축제가 많음.
 - 또한 지속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을 한·중·일 문화도시 간의 협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호 간의 문화산업 전시·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 필요

■ 주요내용

- 각 지역의 우수 문화콘텐츠 상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콘텐츠 페어 개최
 - 문화콘텐츠 대표업체와 단체가 참여하고, 모바일콘텐츠와 문화원형 등 분야별 페어 개최, 최신 제품과 노하우 공유
- 지역 콘텐츠업체의 교토 및 창사 전시·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 지원
 - 각국의 문화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최신 콘텐츠에 대한 정보 교환
- 특화된 콘텐츠업체 및 제품을 선정, 박람회나 컨퍼런스 관련 비용 일부 지원
- 콘텐츠업체와의 협력 컨퍼런스 개최 및 초청 지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문화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
 -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각 도시의 전문인력 간에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 조성
- 문화산업 콘텐츠 페어를 도시별로 순환 개최
 - 매년 또는 격년제로 번갈아가면서 개최

■ 기대효과

- 콘텐츠 업체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

- 마케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 마켓플레이스 기능 뿐 아니라 전문인력 교류의 거점으로도 활용
-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한 넓은 안목 배양

5.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뮤직 위크(Daegu Music Week)’ 운영

■ 추진배경

- 대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음악 분야의 새로운 창의도시로 선정
-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 혁신과 함께 문화적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글로벌 문화이벤트 필요
- 음악콘텐츠의 교부가가치화, 지역음악의 글로벌화라는 목표 추구

■ 주요내용

- 국내외 뮤지션 및 미디어, 공연기획자, 예술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중·일의 특징적 음악을 선보이는 문화이벤트로 추진
- 우수 뮤지션의 판촉이 진행되는 국제적 뮤직 마켓
- 해외 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초청, 글로벌 음악시장에 대한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국내 음악관계자, 뮤지션들과의 교류의 장 마련

■ 기대효과

-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대구 음악의 글로벌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자, 국제 음악계의 다양한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대구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
- 우수한 대구의 음악자원을 홍보하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아시아 국가 간 외교적 차원의 협력채널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와 이해 확산

-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의 각 도시 간 문화교류협력을 통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었음.
 - － 그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이 상대 문화의 정신을 이해 및 실천하고자 매년 1개 도시를 국가별로 선정해서 문화교류 행사를 공동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상징적 의미가 강한 프로젝트
 - － 동아시아 문화의 다채로움과 풍부함,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을 조명하고, 문화도시 구성원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시민의식 교양

■ ‘동아시아 고동치다’ 프로젝트 추진

- 2017년에는 대구(한국), 중국(창사), 일본(교토) 등 3개 도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행사를 추진
 - －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가 공동 사용키로 합의한 ‘동아시아 고동치다’를 공동 슬로건으로 중국 창사, 일본 교토와 함께 한 해 동안 대구 15개 사업, 창사 6개 사업, 교토 6개 사업 등 총 27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
 - － 문화와 산업, 관광이 어우러진 다채롭고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문화의 글로벌화 추진

■ 유럽과 미주, 문화수도 프로젝트 추진

- 유럽이나 미주권역(라틴아메리카)에서도 문화가 해당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재생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수도 프로젝트 추진
 - 권역 내 유럽문화수도(1985년~), 아메리카문화수도(2000년~) 선정·운영
 -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문화공동체 역할 추진
 - 과도한 프로그램 지양, 영향력 있는 적정 수의 질 높은 프로그램 시행
 - 문화수도 선정 도시의 창의성을 도출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 문화공동체의 신뢰감 제고, 문화산업의 발전과 창의계급 양성, 관광 활성화

■ 동아시아문화도시, 기본원칙과 방향성 필요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해야 함.
 -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구조가 필수
- 교토와 창사를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대상으로 인식해야 함.
 - 글로벌 정책의 교두보이자 거점으로서의 지위, 상호 이해와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절실한 파트너라는 인식 필요
- 문화교류의 지속성 유지 및 범위의 확대
 - 문화교류는 인적인 상호 방문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유지
 - 지자체 및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상호 문화 이해를 촉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단계적인 접근과 민간 참여 강화
 - 3국 중 특정 국가의 관심만으로는 안 되므로 협의를 통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시도하기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개 도시는 문화로 협력했던 소중한 경험과 우정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3개 도시 간 문화교류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음.
 - 전시,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교류도 중요하지만 3개 도시가 함께 만들어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이 필요함.

■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공을 위한 과제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구·창사·교토 간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들의 본격적 실행을 위한 체계로서 거버넌스가 필요
 -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가 및 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교류체계를 형성하여 각 개별단체 및 도시 차원의 문화적 발전 도모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도시들 간의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 구축 운영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매개로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정기적인 문화 교류가 가능한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
 - 1단계로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를 설립 후 2단계로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로 확대 창설
- 한·중·일 3국의 공통적 문화원형인 보자기축제의 킬러 콘텐츠화
 - 획일화된 문화가 아니라 보자기처럼 다양성을 통해 새롭게 융합하는 창의도시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의 쌍방향 인력 연수프로그램의 공동기획
 - 3국 간의 공동기획 및 제작, 마케팅의 매개·촉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예술인력, 기술인력, 청년 등 각 영역별 교류 활성화로 휴먼 네트워크 강화
-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한·중·일 문화교류 백서의 공동 발행
 - 문화도시 간의 교류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점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분석하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나침반 기능 수행
-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DB 구축 운영
 - 예술가 DB, 예술기관 DB, 아시아문화정책 정보 취득 및 취합 등의 운영으로 향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문화교류 관련 서비스 공유로 이해 증진
- 문화산업 트렌드 파악을 위한 문화산업 콘텐츠 페어 개최 및 참가 지원
 - 문화콘텐츠 대표업체와 단체가 참여하고, 모바일콘텐츠와 문화원형 등 분야별 페어 개최, 최신 제품과 노하우 공유
-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인 인터넷 포털 설립
 - 3개 도시 문화콘텐츠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
-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뮤직 위크(Daegu Music Week)’ 운영
 -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대구의 우수한 음악자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외교적 차원에서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제2절 제언

- 특정 기간 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단 기간에 도시가 변할 수는 없기에 1년간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 문화도시 간에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고,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가치를 이해하는 문화적 애정이 도시 전반에 녹아들어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는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도시 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잠재력을 서사적으로 잘 보여주어야 하며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적 다양성 촉진으로 3국 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며, 경제·사회·관광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파생 콘텐츠의 재생산에 기여할 것임.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 각 지역 문화의 정수(Essence)를 보여주려는 열의와 일체감이 필요함.
 - 민관 문화시설단체 상호 간의 응집된 결집력으로 예향 도시 이미지를 재현해야 하며 지역문화의 품격을 가장 영향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갖춘 운영주체가 필요함.
 - TFT 형태는 사업 종료 후 다른 조직에 통합 흡수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 기관에 그 기능을 분산해야 함.
 -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조정기관(Coordinator)이 개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할 것임.
 - 유럽문화수도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지만, 유관부서와 함께 국제협력 및 자체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리버풀의 ‘리버풀 컬처 컴퍼니’ 사례는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과 공동체성을 촉진하는 ‘허브’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 동고동락(同苦同樂)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의 거점이자 교류·확산의 전진기지로서 택시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임.
 -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로 확대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고정민, “한중일 문화산업교류 확대방안 연구”, 2010
- 김영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사례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남정숙 외,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특성화 시범사업”, 2011
- 노준석, “영국 창조산업의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2010
-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산업통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03~2016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백서」, 「문화산업통계」, 「문화정책백서」, 2000~2015
- _____,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 계획”, 2007
- _____, “한·중·일 문화산업교류 확대방안 연구”, 2011
- 박성훈 외,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과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2008
- 박세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지식인 연대』, 2004
- 박진희,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2017
- 오동욱, “문화산업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대구경북연구원, 2010
- 오재환, “도시권 연대협력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6
- 이남희,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구축방안—문화유산의 활용과 가치공유를 중심으로”, 『동양사 회사상』, 제11집, 2005
- 이수행, “경기도와 산동성의 문화산업 협력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8
- _____, “경기도와 산동성의 문화역사자산을 활용한 교류협력 확대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6
- 이순자, “유럽 ‘문화수도(Capital of Culture)’ 추진전략의 성과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8
- 이유리,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국 창작뮤지컬의 제작 현실과 가능성”, 2002
- 이호영,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유럽의 문화정체성”,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EU's 정영진, “유럽 문화수도의 선정과 효과”,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정정숙, “아시아문화수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통계청,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
- 최진우,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 200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복합 콘텐츠 산업동향과 발전전략”, 2011
- _____,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2017
- Andy C. Pratt & Paul Jeffcutt, 「문화경제의 창의성과 혁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Cultural Polic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KIEP 세미나 자료, 2007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8–2012”, 2008
- Rolf Jensen, “미래는 문화다: 경험경제로의 길”, 글로벌 문화포럼, 1999

Yoon, Sung-Won. "Shaping European Identity through Cultur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The Case Study of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09

■ 웹자료

공연포탈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http://www.otr.co.kr>
대구광역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두산백과사전 공식 홈페이지, <http://www.doopedia.co.kr>
매일신문 공식 홈페이지, <http://www.imaail.com>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미주문화수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cac-acc.org>
영남일보 공식 홈페이지, <http://www.yeongnam.co.kr>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europa.eu>
위키백과 공식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
인터파크 공식 홈페이지, <http://www.playdb.co.kr>
조선일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ctp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caf.or.kr>
한국방송 공식 홈페이지, <http://www.kbs.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cca.or.kr>

이외 많은 인터넷사이트를 참고하였음.